



학술위원회

1.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를 10월 23~24일(목, 금)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전문의 420명, 전공의 240명, 기타 22명 총 682명).

1)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Satellite symposium(대한치매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수면연구회)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회원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2) 추계학술대회에는 총 418편(원저 230, 증례 188)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학술위원회는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각 3편씩의 우수논문 발표상을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2.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일정

- 제목 : CNS infection, Neuroophthalmology
Workshop(수련위원회 주관)
- 일시 : 2004년도 4월 16~17일(금, 토)
- 장소 : BEXCO(부산 전시컨벤션센터)
- 후원 :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주), 한국BMS(주)



수련위원회

1. 2004년도 1년차 전공의 정원 확정

2004년 전공의 배정에 대해 본 학회는 2003년 5월 전공의 정원 확충을 공문으로 병원협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수련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마친 총 85명의 정원을 확정하여 9월 말에 병원협회에 정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의 절충과정을 거친 후, 11월 30일부로 2004년 정원은 78명으로 확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과 같은 인원수입니다.

2. 신경과 전문의 장기 수급에 관한 연구 용역

한림대학교 보건의학원에 의뢰한 전문의 장기 수급에 관한 연구 용역이 추계 학술대회에서 중간발표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말 용역 기간이 끝나면서, 정식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추후 정원 정책에 대한병원협회 및 복지부와의 대화에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시위원회

1. 2004년도 47회 전문의 고시 일정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03. 11. 3. (월)~11. 7. (금), 09:00~17:00
- 접수 장소 : 대한신경과학회 사무실

2) 응시자격 예비심사 : 2003. 11. 14. (금) 학회사무실

3) 수험표 교부

- 일시 : 2003. 12. 15. (월)~12. 19. (금)
- 교부 장소 : 대한신경과학회 사무실

4) 1차 시험(필기) 및 배점

- 일시 : 2004. 1. 8. (목) 10:00
- 장소 : 유한대학(예정)
- 배점 : 객관식 100문제(문제 당 0.7점, 합계 70점)
주관식 30문제(문제 당 1점, 합계 30점)
출제계획표 : 61호 회보 및 홈페이지 참고

5) 2차 시험(실기 및 구술시험)

- 일시 : 2004. 1. 16. (금) 오전 8시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 배점 : 실물 90점(사진, 비디오, 실물/R-type 문제 포함) + 구술 10점
실물 판독과 R-type은 합쳐서 약 30점 배점으로 출제 예정

6) 합격자 발표

- 1차 : 2004. 1. 15. (목) 14:00
- 2차 : 2004. 2. 9. (월) 14:00
- 전문의 자격증 교부 : 3월 초순

2. 고시위원회가 2003. 11. 14. (금) 학회사무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7회 고시 1차 응시대상자 66명(46회 불합격자 4명 포함) 전원 예비심사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일부 응시자 중 전공의노트 기록이 부실하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3. 3년간 수고하신 한설희(충북의대), 이광수(가톨릭의대), 정원영(전 조선의대, 개원으로 중도 사퇴) 고시위원 후임으로 서만욱(전북의대), 김재문(충남의대), 이재홍(울산의대) 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고시위원으로 수고하신 한설희, 이광수, 정원영 위원께 재차 감사드립니다.

4. 주관식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대한의사협회 공고 사안임)

주관식 답안 작성 시 답지 항목에 정답을 한 가지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주관식 문제에서 정답이 3가지(A, B, C)인 경우 답지에 1) A, 2) B, 3) C라고 기재하면 만점으로 처리가 되나 1) A, 2) B, C 3) D라고 기재한 경우는 답지에 정답 A, B, C가 모두 들어 있으나 답지 3) D가 명백한 오답이므로 2/3만 배점됩니다. 즉 2) B, C로 기재한 경우 둘 다 정답이지만 처음 기재한 B만 채점하고 연이어서 기재한 C는 채점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1. 2005년 전문의 응시자 신경과학회지 논문 접수 안내

2005년 1월 전문의 시험 응시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논문 투고 시 3월 말 접수마감, 6월 말 심사완료’는 변경이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전문의 시험 응시에정자 중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위하여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부족한 회원은 2004년 3월 말까지 논문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2. 2005년 전문의 응시자 제출 논문 안내

신경과 전문의 시험 제출 서류 중 2편 이상의 논문이 있어야 합니다. 1편은 원저 또는 증례 보고여야 하며 단신보고는 여러 편 보고해도 1편만 인정합니다. 1편 중 최소 1편은 제1저자여야 하며, 원저, 증례보고, 단신보고에 관계없이 최소 1편은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홍보위원회

1. 건강교실

일시	주제	강 사	장 소
9/19	뇌졸중	배재천교수(한림대)	춘천노인대학
10/16	치 매	이은아과장(시립서대문병원)	마포노인종합복지관
10/20	치 매	박건우교수(고려의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0/30	치 매	이은아과장(시립서대문병원)	인천실버타운
11/14	뇌졸중	박건우교수(고려의대)	강북구보건소
11/16	치 매	이은아과장(시립서대문병원)	연세빌딩(한국노인복지회)
11/20	뇌졸중	이은아과장(시립서대문병원)	은평구 녹번성당
11/25	뇌졸중	이은아과장(시립서대문병원)	은평구 연촌성결교회
11/28	뇌졸중	이은아과장(시립서대문병원)	은평구 응암성당
12/17	치 매	안광병원장(안광병신경과)	대전 대덕구 노인복지회관
12/18	뇌졸중	이은아과장(시립서대문병원)	인천실버타운

2. 서울시 실버취업박람회 대한신경과학회 의료서비스관 개관

10월 21일(화), 22일(수)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 서울시 주관의 실버취업박람회에 ‘대한신경과학회 의료서비스관’ 부스를 설치하고 치매 무료 검진과 신경과 홍보용 소책자, 판넬, 비디오를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4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석하였고 주요 일간지에 학회의 대민 봉사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3. 홍보물 제작

손떨림 소책자와 두통포스터를 제작 중이며 내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 신문, 방송

<건강교실이 주요 일간지에 소개>

일시	매체명	주 제	출 연 자	비 고
9/19	KBS 생로병사의 비밀	뇌결핵증	이은아과장(서울시립병원)	-
10/30	한겨레	치매 무료 검진	-	-
11/20~21	큐릭스 유선방송	뇌졸중	박건우교수(고려의대)	16회

종 무

- 회원의 주소 및 기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학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주소는 학회지 및 Newsletter 등을 발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과 홈페이지 진료안내 자료로 활용 됩니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에 정확한 주소 및 근무처가 기재되어야 하오니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란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후원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추계학술대회 전시 참여 업체(가나다 순)

계림메디칼, 고려제약(주),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네오메디칼, (주)녹십자PBM, (주)대상, (주)대웅제약, 동아제약(주), 메디트로닉코리아(주), 명인제약(주), 보령제약(주), 부광약품(주), 사노피신테라보코리아(주),서림통상(주), 영우메디텍, 영진약품(주), 위드메드, 일동제약(주), 제일제당(주), (주)유유, (주)광원메디칼, (주)뉴로텍, (주)원익, (주)통일의료기, 중외제약(주), 초당약품, 한국노바티스(주), 한국쉐링(주), 한국얀센(주), 한국에자이(주), 한국엘러간(주), 한국오츠카제약(주), 한국유씨비제약(주), 한국BMS(주), 한독약품(주), 한미약품(주), 한일약품(주), 한화제약(주), 현대약품약품공업(주), CJ(주), SK제약(주)

2) 학회지 광고 참여 업체(가나다 순)

(주)대웅제약, 동아제약(주), 명인제약(주), (주)보령제약, 부광약품(주), 유유산업(주),
(주)사노피-신테라보코리아, 한국노바티스(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주)한국쉐링,
(주)한국안센, 한국에자이(주), (주)한국파마시아, 한국화이자제약(주), 한독약품(주),
한미약품(주)

3) 학회 홈페이지 광고 참여 업체

명인제약(주)

 **회원동정**

1. 분취의학상 수상

김종성(울산의대) 회원이 제13회 분취의학상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경조사

김상범 회원	대강보건지소	2003.10.25	결혼/축하드립니다
도화범 회원	서울성심의원	2003.08.14	부친상/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배재천 회원	배재천신경내과	2003.11.08	개원/축하드립니다
심동석 회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2003.10.10	결혼/축하드립니다
엄근용 회원	광명성애병원	2003.09.25	부친상/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광훈 회원	제일의원	2003.11.20	개원/축하드립니다
이중호 회원	연세호신경과	2003.10.16	개원/축하드립니다
정환모 회원	환사랑의원	2003.06.16	개원/축하드립니다
하현욱 회원	상당구보건소	2003.10.19	결혼/축하드립니다

2003년 6월 11일 대한신경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서석조 선생님(1999. 12. 19. 작고)과 김상욱 선생님(1994. 1. 15. 작고)께서 대한신경과학회에 기여하신 공로를 기리기 위해 추모사를 뒤늦게나마 학회회보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62호 회보에는 서석조 선생님에 대한 추모사를 순천향대학교병원 안무영 교수가 썼고, 2004년도 제63호 회보에는 김상욱 선생님에 대한 추모사를 부산대학교병원 박규현 교수가 쓸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선생님의 대한신경과학회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추 모 사

순천향대학교병원 안 무 영

서석조 선생님은 일찍이 의료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에서 수학하신 후 국내 우수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 진료 및 교육에 매진하여 수많은 연구업적과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하여 오늘날의 내과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 더구나 순천향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낙후된 지방의료환경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서석조 선생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일생을 오직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힘썼고 의료인으로서 손색없는 삶을 살았고 성취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의료인 중의 한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46년도에 일본구 경도부립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9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조교를 하였다.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턴 및 내과 전공의를 마친 후 뉴욕 시립 벨부 병원에서 신경내과를 다시 전공하였다. 연세의과대학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여 내과학교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56년에는 내과교실에서 분과개념으로 나뉘어 진료,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안정된 발판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당시 연구업적은 신경계 질환과 내과 분야 중 내분비 계통질환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60년 9월 가톨릭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제4대 주임교수로 취임하여 1964년 8월까지 역임하였다. 고려병원과 백병원 내과부장으로 재직 할 때와 순천향병원을 설립 경영하면서도 저술활동이 활발하였다.

일제시대와 6. 25. 이전 국내의 신경과학 분야는 불모지나 다름없이 일부 외국인 의사에 의한 진료나 정신과 교수가 분담하여 강의하는 수준이었다. 학문 및 진료 면에서 진정한 신경과학 도입은 1954년 미국에서 신경과학을 연수하고 돌아온 서석조 선생님부터이며 오늘날 신경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케 하신 분이다. 1955년부터 1964년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과 최대규모의 병원의 요직을 담당하실 때에 내과 분야 중 특히 내분비학과 신경과학의 연구에 매진하였고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제자인 김기환 교수(전 연세의과대학 신경과학 주임 교수)와 함께 가칭 신경과 신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경과의 독립된 수련과목과 진료를 위해 보사부, 의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건의와 탄원을 하였고 직접 해당 담당자를 방문하고 신경과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득하여 마침내 1982년 대한신경과학회의 창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초창기 회장중심의 학회 때 3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1974년 동은 의료재단을 창설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순천향 종합병원을 설립 경영하면서 생의 모토이자 의사로서의 숙원인 광제인술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개원한 지 4년 후 1978년 1월 충남아산에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초대학장으로서 낙후된 지방의료 환경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을 발전시켜 천안순천향, 구미순천향, 최근에는 부천순천향대학병원까지 굴지의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였다. 당시 의과대학 설립의 동기와 취지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의과학이란 것이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 병원만 가지고는 학문하는 풍토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동료 교수급 의사들의 공허한 모습도 자극이 됐지요” 라고 했다. 즉 서석조 선생님은 의료계의 연구가로서도 생의 일면을 봉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었다. 우리나라 근세의료 1세기사상 한사람의 의학교수로서 의과대학을 창설한 최초의 인물이 된 셈이다.